

2023 년도 대학생방한단 (파견) 의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

일본 전국으로부터 선발된 대학생들을 한국으로 파견하여, 대학방문 등을 통한 동세대와의 교류, 특강 청강 등을 통해,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일본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전파함으로써 향후 한일 간의 상호 이해 촉진과 신뢰 관계 증진을 위한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참가자】

사전 프로그램 (온라인) : 일본의 대학생 등 30 명

파견 (오프라인) : 일본의 대학생 등 30 명

【방문지】

사전 프로그램 (온라인) : 서울특별시 30 명

파견 (오프라인) :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30 명

【일정】

■ 사전 프로그램 (온라인):

9 월 2 일 (토) 한국 방문 전 오리엔테이션, 강의 청강,
한국대학생방일단 참가자들과의 교류

■ 방한 프로그램:

9 월 11 일 (월) 김포국제공항 입국, 오리엔테이션

9 월 12 일 (화) 【예방/특강】 한국 외교부 및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시찰】 전쟁기념관

9 월 13 일 (수) 【학교방문/특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한국의 대중문화에서 보는 한일문화교류’

【교류】 서울대학교 캠퍼스투어 및 학생교류, 【시찰】 청와대

9 월 14 일 (목)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이동, 【시찰/특강】 커먼즈필드 춘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이동, 【시찰】 유지엄 선

9 월 15 일 (금)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이동, 【시찰】 DMZ 펀치볼 둘레길,
【시찰/체험】 해안야생화공원, 【시찰】 까미노사이드리, 서울특별시에 이동

9 월 16 일 (토) 【교류】 한국대학생방일단 참가자들과 그룹별 프로젝트 준비 및 필드워크
【교류】 홈스테이 대면식

9 월 17 일 (일) 【교류】 홈스테이

9 월 18 일 (월) 홈스테이에서 집합, 성과보고회, 【시찰】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9 월 19 일 (화) 김포국제공항 출국

2. 프로그램 현장 사진



2023년 9월 12일 【예방/특강】 외교부



2023년 9월 12일 【예방/특강】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023년 9월 12일 【시찰】 전쟁기념관



2023년 9월 13일 【학교방문/특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23년 9월 14일 【시찰】 커먼즈필드 춘천



2023년 9월 15일 【시찰】 DMZ 펀치볼 둘레길



2023 년 9 월 15 일 【시찰】 까미노사이더리



2023 년 9 월 16 일 【교류】 한국대학생방일단 참가자들과 그룹별 프로젝트 준비 및 필드워크



2023 년 9 월 16 일 【교류】 홈스테이 대면식



22023 년 9 월 18 일 【성과보고회】

3. 참가자 소감 (발체)

◆ 일본 대학생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청강한 ‘한국에서 본 일본 문화’에 대한 강의가 매우 흥미로웠다. 일본에서 K-POP 이나 한국 드라마가 인기인 것처럼 한국 분들도 일본의 엔터테인먼트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본의 매력을 발신해 나가 한일의 문화 교류를 더 심화해 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 일본 대학생

교류한 학생 중 처음에 일본에 대해 별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분을 만났는데 교류를 통해 ‘또 만나고 싶다’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정치적인 관계만으로는 한일의 상호이해는 불충분하며 이러한 문화교류와 다양한 세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방한을 통해 느꼈다. 앞으로 교육실습에 나갈 기회가 있는데 방한단 체험과 한일관계에 대해서 한국 학생들에게 들은 메시지를 살려서 수업을 하고 싶다.

◆ 일본 대학생

이번 방한단에서의 배움을 통해 넓은 시야에서 자국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문제를 계속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하게 느꼈다. 그 중에서도 문화를 통한 청소년 교류는 한일의 사람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일본 국내에서는 보이지 않는 한국을 아는 방법으로 청소년 교류가 있다. 미디어 정보나 SNS 에서 난무하는 진위를 알 수 없는 서로의 나라의 정보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스스로 느껴서 정답을 아는 것이 양국의 관계 유지·개선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 일본 대학생

저출산 고령화나 지방의 과소화 등의 사회문제를 생각할 때 국내 뿐만이 아니라 국외의 사례도 참고가 된다는 것을 배운 점이 가장 인상에 남아 있다. “지방은 도시부를 따라 해서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방은 그 지방의 장점을 살려서 사람을 불러모아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꽂혔다. 지방활성화를 생각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사고방식이라고 새삼 느꼈다.

◆ 일본 대학생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찾는 학생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한 대화에서는 평소 제가 고심하고 있던 뜻이 맞는 사람을 모으는 방법과 실현하려고 생각하는 ‘기후위기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조성’도 다루어 대단히 자극이 되었다. 우리들 주변의 사회 문제로는 가장 글로벌한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기후위기에 대해 외국 분들의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4. 한국 측 소감 (발체)

◆ 한국 측 기관 담당자

짧은 기간이지만 일본 학생들이 한국의 여러 매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정을 기획했다. 그 속에서 참가자들이 한국과 일본이 이뤄온 다양한 교류의 현장을 살펴보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모습을 보고 사업 담당자로서 보람있을 뿐 아니라 동 사업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었다.

◆ 한국 측 교류상대 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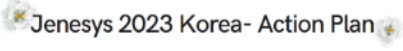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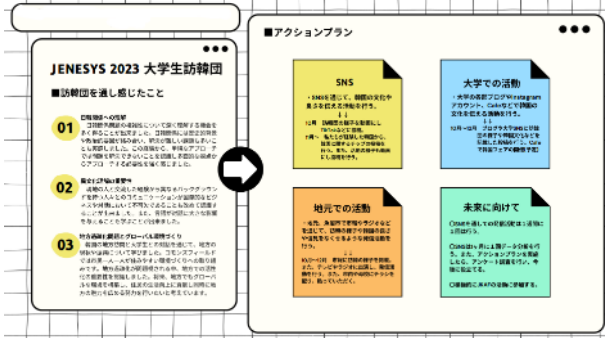
온라인프로그램 때 짧은 시간 동안 줌을 통해 소통하여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금세 친해질 수 있었다. 11 월의 방일단 일정에서도 더욱 긴밀해진 우리가 한일관계 우호의 주춧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 한국 측 교류상대 대학생

첫 일정은 토론이었는데, 일본과 한국의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 나눈 것이 재미 있었다.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혹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고 젊은 세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매우 뜻깊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학생으로서의 평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한국과 일본 모두 공통된 고

보고회에서 좋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6. 보고회에서의 귀국 후 액션플랜 발표 (방문지 :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訪韓中に感じたこと・学んだこと 今回の訪韓ではたくさんの貴重な経験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そんな9日間で私が感じていたことは、人との出会いや新鮮な体験は、自分自身を奮い立たせ、活力を得られる行為であり、これから社会人になっても自らをそんな環境に置きたいということでした。共にプログラムに参加した訪韓団の仲間たちや韓国の大学は、広い視野で自分と世界を見つめ、考え行動する姿が本当に良かったです。そんな彼らから私は活力をもらいました。また、9日間すべてのイベントが充実していましたが、特に春川のコモンズフィールド 	 JENESYS 2023 大学生訪韓団 ■訪韓団を通して感じたこと 01 訪韓団への期待 訪韓団のメンバーは、訪韓期間中に様々な経験を積み、帰国後にはその経験を活かして社会で活躍す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02 韓国の文化や生活 韓国の文化や生活について学び、特に食文化や伝統文化に興味を持ちました。 03 韓国の大学や企業 韓国の大学や企業について学び、特に先端技術や起業に興味を持ちました。 ■アクションプラン SNS ・SNSを通じて、韓国の文化や生活を紹介する発信を行う。 ・SNSを通じて、韓国の大学や企業について学び、特に先端技術や起業に興味を持ちました。 大学での活動 ・大学の授業やゼミに参加し、特に先端技術や起業に興味を持ちました。 ・大学の授業やゼミに参加し、特に先端技術や起業に興味を持ちました。 地元での活動 ・地域のイベントやボランティアに参加し、特に先端技術や起業に興味を持ちました。 ・地域のイベントやボランティアに参加し、特に先端技術や起業に興味を持ちました。 未来に向けて ・将来の夢や目標について考え、特に先端技術や起業に興味を持ちました。 ・将来の夢や目標について考え、特に先端技術や起業に興味を持ちました。
【방한중에 배움】 춘천의 커먼즈필드에서는 나 자신이 관심 있는 공간조성과 거기에서의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에 관련된 강의를 들었다. 한국의 문화와 습관 하에서 이러한 체현방식이 흥미로웠으며 앞으로 보다 넓은 시야에서 배움을 심화해 나갈 수 있겠다고 느꼈다. 【테마에 관한 방한중 발표】 이번 프로그램은 한일에 공통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았다. 커먼즈필드에서는 식품손실문제, 지구온난화 해결을 목표로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까미노 사이더리에서도 사과와 대량폐기를 막는 활동을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라가 달라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끼리 이번처럼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나라만의 해결안을 공유하는 것이 양국의 미래에 좋은 움직임이라고 느꼈다. 【액션플랜】 ・이번 방한에서 느낀 점과 의문점, 흥미를 갖게 된 점을 심화해 나간다. ・심화과정과 자기 나름의 견해를 note 라는 사이트에서 발신한다. ・한국과의 유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한중에 배움】 현지 분들과 교류한 경험에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국제적인 비즈니스나 대화에서 불가결하다는 것을 새삼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언어가 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다. 【테마에 관한 방한중 발표】 한국의 지방 방문과 대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지방의 현황과 진흥에 대해 배웠다. 지방의 과소화가 문제가 되어 있는 가운데 지방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장래 지방에서도 글로벌한 환경을 구축해 주민의 생활향상에 공헌하는 동시에 지방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노력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액션플랜】 ・대학의 학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SNS로 정보를 발신한다. ・지역 시보에 기고, 라디오 출연, 모교에 홍보물 부착 등의 활동을 통하여 정보를 발신한다. ・대학생 방한단 OBOG 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나간다.

방한 OBOG 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교류를 통해 새로운 가치관에 접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한다.	
--	--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